

# 모두 발언

2025. 9. 30.(화) 14:00

드림플러스 강남 (B1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가상자산사업자 CEO 여러분과  
오늘 간담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닥사(DAXA)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 II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언

2008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래  
급격한 성장을 이어온 가상자산 시장은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며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상자산은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에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가 1,00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성장해 왔으며,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존중할 때에만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합니다.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의 시각에서,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T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는  
거래소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상책임을 강화할 목적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떡통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대된다면,  
최근 통신사나 금융회사 사례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IT 안전성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IT 인프라의 구축과 안정성 관리 등에  
더욱 많은 자원을 배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위해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시장감시 조직·인력 확충,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적인 시장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물 경제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상자산은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등을 통해  
금융·실물 경제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의 작은 충격이  
금융·실물 경제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IMF, FSB 등 국제기구도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 급변 등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리스크 관리역량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Ⅲ 맺음말

정부는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만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앞날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이용자 중심 경영과 신뢰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